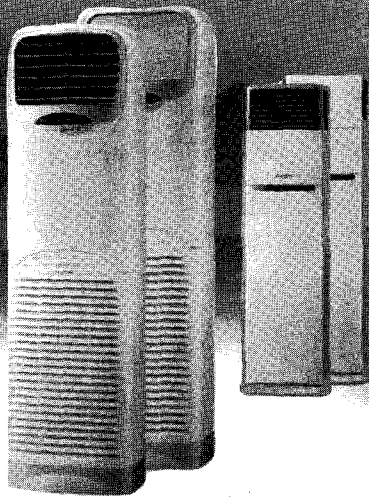


시스템에어컨 시장전망



○ 시스템에어컨은 무엇인가

시스템에어컨은 한 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냉매배관으로 연결하는 냉난방시스템을 말한다.

공간절약성이 뛰어나며, 건축비 절감 및 공기 단축효과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우수해 미래지향적 공조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스템에어컨은 기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가정용 스탠딩 에어컨이나 패키지에어컨과는 개념이 다르며, 중앙공조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중앙공조방식에 필요한 기계실이나 공조기, 냉각탑 등 부대적인 기계설비가 필요없어 공간절약 공

기 건축비 등의 저렴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ON/OFF를 할 수 있어 따로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가정용 에어컨이 건물 완성 후 설치하는 방식인데 반해 시스템에어컨은 건물 설계시부터 반영된다. 또 실내공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실내기를 조합한 복합형과 천장카세트형, 천장매립덕트형, 벽걸이형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어 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살린 건물을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된다.



○ 시스템에어컨 시장전망

비용절감, 공간절약, 인테리어의 자유성 등 장점으로 시스템에어컨 시장은 최근 급속도로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리모델링 활성화와 맞물려 그 시장성이 매우 밝다.

국내에 99년부터 첫 보급을 시작된 이래 매년 5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는 시스템에어컨은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2005년경 1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장전망에 몰들어 시스템에어컨 시장에 두산상사BC와 신성이엔지 등이 신규 참여를 선언했고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몇몇 업체들이 더욱 가세할 것으로 보여 거대한 시장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에어컨 시장규모는 2500~3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을 감안해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 보급현황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는 패키지형 및 벽걸이형은 전체 에어컨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형 빌딩의 경우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성장과 더불어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시스템에어컨을 축으로 공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93년 처음으로 국내에 시스템에어컨이 처음 소개

되었고, 국내 시스템에어컨 시장은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도시기능 고도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냉난방에 대한 패턴변화, 주상복합건물이나 고급아파트 빌라 등의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보급업체

LG전 자

LG전자는 국내 시스템에어컨 선방업체로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10만대의 판매고를 올려 세계 1위 에어컨 판매업체로 등극한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에서만 1억2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 열린 파도 바쇼에 시스템에어컨 17종을 전시하는 등 유럽진출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체개발한 인버터스크롤 압축기는 해외공조전문가와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수출전망을 밝게 했다.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는 냉난방 능력을 조절하기 쉬운 인버터 기술과 소음과 진동이 적은 스크롤 냉매 압축방식을 이용해 냉방능력이 우수하고 안정된 가동이 가능하다. 또 여름과 겨울의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라 공간의 온도변화를 감지해 냉난방 능력을 조절할 수 있어 절전능력이 뛰어나다.

LG는 올해 시스템에어컨 부문에서 1억5000만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약 4억 달러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업소 및 빌딩용 공조설비인 시스템에어컨을 적극 육성해 세계 최대의 토털 공조업체로 부상한



다는 계획이다.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이엔지는 공조 및 클린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일본 히타치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HFC계열 신냉매인 R407C를 사용한 환경친화형 멀티에어컨 보급에 나서고 있다.

셋프리란 브랜드로 시판되고 있는 이 제품은 실외기에 신냉매인 R407C를 사용한 제품과 기존 R22 냉매를 사용한 2가지 형태의 실외기와 천장매립형 등 7가지 형태 35개 모델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또 이 제품은 실내기와 실외기에서부터 전열교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트롤과 컴퓨터 제어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전체를 제어할 수 있고 모든 실내기와 실외기를 직렬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성은 시장진출 원년인 올해 20-30억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대형 아파트 및 빌라, 개보수 건물 등으로 영업력을 확대해 2005년경에는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종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남지공조

국내 철도차량 에어컨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주)남지공조는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시스템에어컨 시장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천장카세트형 제품을 개발, 올해부터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학교를 비롯, 병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남지공조의 천장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은 개별

컴프레서형 제품으로 실외기 1대에 4방향 토출형, 2방향 토출형, 1방향 토출형, 코너형 등 12대의 다양한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실내기는 최소용량 1500kcal/hr부터 최대용량 8000kcal/hr까지 다양한 기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코너형 제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지공조는 올해 100억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00% 증가한 200억원대까지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주)세원기연

(주)세원기연은 지난해 1월 미쓰비시중공업과 냉동공조부문에 대해 전략적 기술제휴를 맺고 빌딩멀티공조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멀티에어컨만으로 2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세원은 제품의 우수성을 앞세워 설계사무소 및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해 올해 목표를 100억원대로 보고있다.

이 회사 제품은 히트펌프방식을 채택해 냉난방이 가능한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대구경 팬을 적용해 소음이 기존 제품보다 2-3데시벨 작고 실내외기 간 높이 차는 50미터에 최대 130미터까지 한 방향 배관이 가능하다. 특히 영하 15도의 외부온도에서도 난방이 가능하고 영하 5도에서 냉방이 가능해 일년 내내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멀티공조시스템이다.